

이가성(李嘉誠)과 운전수

KOTRA 청다오 무역관 이평복 고문

홍콩의 화교계 최고 갑부인 이가성의 운전수는 30여 년간 그의 차를 몰다가 마침내 떠날 때가 되었다. 이가성은 운전수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히 보내게 하기 위해 200만 위안의 수표를 꺼냈다. 그랬더니 운전수는 필요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일 이천만 위안 정도는 모아놓았습니다, 하더라.

이가성은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월급이 5-6천 위안밖에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액의 돈을 저축해 놓았지!’

운전수는 ‘제가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것을 듣고, 땅 사실 때마다 저도 조금씩 사놓았고요, 주식을 살 때,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아, 지금 자산이 일 이천만원에 이르고 있어요!’

인생에 누구를 만났느냐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파리의 뒤를 쫓으면 변소 주위만 돌아다닐 것이고, 꿀벌의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노닐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만 잘 만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이가성 운전수처럼 부동산과 주식의 귀재인 이가성의 전화통화를 주의깊게 염담하고, 짹짹하게 행동에 옮기는 영리함과 민첩성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중국에 사는 한국인을 만나면, 중국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본다. 그 대답에 따라, 그 분이 중국에 와서 교류하는 중국인의 계층은 대략 판별된다. 이 세상에 평균적인 중국인은 없다. 13억의 중국인은 전 세계 지구인의 모든 양태를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고 누굴 주로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이민자를 받아주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중국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더욱이 여자 55세, 남자 60세가 지나면, 취업증 받기도 매우 힘들어 진다. 즉, 우리가 중국에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살 수 있는 기한은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된 시간에 우리는 중국에 올 때 그랬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현지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런 계층과의 인맥형성은 말처럼 쉽지 않다. 언어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교양도 품격도 상당수준 요구되는데다가, 상대와 함께 이익을 나누려는 정신과, 상대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는 적극성과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세심한 인맥 관리를 통한 신뢰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낮설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중국 땅에 와서, 가슴에 품고 온 꿈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만 가지고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내 주위에 나를 뒷받침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나와 함께 발전하는 "인맥"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가 결국

관건이라 생각한다.

이가성과 운전사의 일화를 읽고, 필자는 이가성의 자서전에 나온 한 단어를 고쳐서 글을 맺고 싶다.

"사람(원 단어: 지식) 으로 당신의 일생에 재부(財富)가 증가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기회만큼은 필연코 증가된다"

<참고자료 - 아시아의 화교출신 거부 이가성(李嘉誠) -학습이 운명을 좌우한다>

‘내 나이 12살 때부터 견습공으로 인생을 시작했다. 15세도 안되어 나는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고, 정규교육이라고는 받지 못했다. 그 당시, 열심히 일하고 지식을 습취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나는 명확히 인식했다. 나는 돈이 조금 생기면 모두 책을 사는데 쓰고, 머리속에 기억해 놓고는 또 다른 책으로 바꾸었다. 지금까지도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반드시 책을 읽는다.

지식으로 당신의 일생에 재부(財富)가 증가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기회만큼은 필연코 증가된다. 당신이 창조한 기회,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이다‘